

올해 만12세 이상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

올해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제3기 현장메신저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당국이 위촉한 소비자가 직접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3기 현장메신저 활동을 통해 18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118건에 대해 현장조치를 취했으며 33건은 검토 후 수용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만 12~17세 청소년들도 5만원 미만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예기치 못한 잔액부족이나 주기적인 충전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건에 따른 것이다.

변액보험료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발생여부 불분명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설명서에 변액보험료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부과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장기미사용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계좌는 미리 안내를 실시토록 하는 '사용중지계좌 전환 전 의무알림서비스'나 '카드납부 가능 보험상품 공시' 등의 건의사항도 수용돼 현재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새로 활동을 시작할 4기 현장메신저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개최했다.

최종규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메신저 105명 중 대표 7명에 대해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현장메신저들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리상승 상환부담 낮춘 변동금리형 주담대 출시

3월18일부터 15개 은행 통해 공급...월상환액 고정형·금리상환형 등 2종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위험을 낮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종이 다음달 나온다.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18일부터 KB·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5개 은행을 통해 금리상환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돼 있어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환형 주담대' 등 2종으로 나뉜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8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만 한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용이 적용된다.

이 상품은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기

때문에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3.5%인 상황에서 3억원을 빌린 차주라면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이 17만원 가량 줄어든다.

금리상환형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환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환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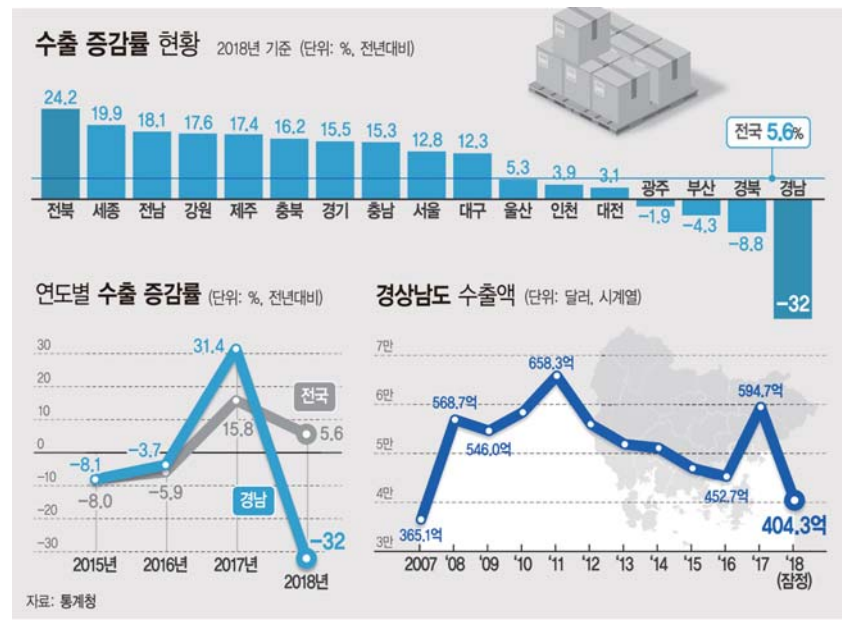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에는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 3.5% 금리에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라면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올라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을 9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또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오른다고 가정해도 대출금리는 최대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을 약 27만원 아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의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넬라이, 황금색지 한정판 시계 공개 20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파넬라이 매장에서 모델이 '루미노르 썬앤드(44mm)'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출, 사상 최대 실적 올렸지만 '조선업 장기 불황' 경남 11년래 최저 통계청, '2018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7위 국가에 올라섰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져 온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상남도 지역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 지역 수출액이 1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경남 지역 수출액은 404억3300만달러로 1년 전(594억7400만달러)보다 32.0% 급감했다. 수출액은 365억200만달러를 기록했던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감소 폭은 전체 시·도 중 가장 컸다. 200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e-지방지표상 통계를 보면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석유 정제품 등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전국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00억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1년 전(5739억9400만달러)보다 5.6% 증가한 6058억800만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남 지역 최대 수출 품목인 선박, 해양플랜트 등 조선업 부문에서의 불황이 최대 요인이다.

지난해 경남과 함께 수출액이 감소한 지역은 경상북도(-8.8%), 부산광역시(-4.3%), 광주광역시(-1.9%) 등이다. 경북의 경우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의 부진으로, 부산은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수출 실적이 뒷걸음질 쳤다.

반면 전라북도(24.2%), 세종특별자치시(19.9%), 전라남도(18.1%), 강원도(17.0%), 제주도(17.4%), 충청북도(16.2%), 경기도(15.5%), 충청남도(15.3%), 서울특별시(12.8%), 대구광역시(12.3%) 등은 수출 증가율이 양호했다. 이들 지역에선 대체로 화학 제품과 자동차 부품, 석유

정제품 등이 호조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광공업생산지수는 1975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04.5로 1년 전(104.2%)보다 0.3% 소폭 늘었다. 반도체, 화학 제품 등 수출이 활발했지만, 2016년 2.3%, 2017년 1.9% 높아졌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충남(10.4%), 인천광역시(9.0%), 세종(8.4%)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운수·창고업 등에서의 호조에 광공업생산보다 증가 폭이 컸다. 지난해 전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6.6으로 1년 전

광주광역시(-1.9%)도 감소 전남도(18.1%) 증가율 양호

(104.5)보다 2.0% 늘었다. 모든 시·도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으며 서울(3.2%), 인천(2.7%), 제주(2.0%) 등에서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국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110.3으로 1년 전(106.9)보다 4.2% 늘었다. 면세점, 승용차·연료, 소매점 등에서 호조를 보여 제주(11.0%)에서 크게 늘었고 서울(5.6%), 인천(3.4%), 경기도(2.3%) 등에서 증가했다. 평창 올림픽 특수로 강원 지역 소비도 1년 전보다 2.4% 늘었다.

전국 건설수주액은 134조5570억원으로 1년 전(140조8440억원)보다 4.5% 쪼그라들었다. 경남 지역 수주액이 5조5070억원으로 39.7% 크게 줄었는데, 이는 고성 화력발전소 수주 이후 발전·송전 분야가 부진했던 탓이다. 이밖에 세종(-38.1%), 충북(-33.4%), 광주(-33.2%) 등에서도 부진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